전기차 혁신클러스터 조성 박차

군산 강소특구 사업, 투명성·효율성 제고 위한 다각적 노력

군산시는 유망 공공기술 발굴, 기술이전사업화, 지역 특화성장 프로그램 등 친환경 전기차 부품 소재를 중심으로 기업 성장과 창업, 연구소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는 연구소기업 7개사 설립,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 15개사 선정, 혁신성장 IR 경진대회 2개사 수상 등의 성과를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1차년도 사업을 수행했다.

올해 2차년 사업으로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 수요처 연계, 중소기업 및 혁신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특구 실증특례를 활용한 혁신사례와 신기술 창출을 지원하며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2차년도 사업에 앞서 전북도, 군산시, 군산대는 지난 1월 21일 강소특구 육성사업단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외부위원을 확대하고 운영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는 등 강소특구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 운영위원회 외부위원은 3명으로 구성돼 있었지만 군산시의원, 연구기관·벤처기업 관계자를 포함해 7명으로 확대 구성해 지역 혁신기관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의견 개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계획·예산·업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했던 기존과 달리 사업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사업단 구성·임명에 관한 사항과 함께 수혜기업 선정 절차, 특화개별사업의 추진 절차 등 사업수행을 위한 자체기준도 심의 받도록 명시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전국 최대 혜택 '익산다이로움' 발행 규모 확대

일반발행·정책수당 포함 3500억원 발행… 민생경제 활력소 역할

전국 최대 규모의 혜택을 지원하는 지역화폐 익산다이로움의 발행 규모가 확대된다.

시는 이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입증된 다이로움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민생경제의 활력소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익산다이로움 일반발행은 연 3천억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농민공익수당과 근로청년수당 등 정책수당 500억원을 확대 발행한다.

정부 지원예산 축소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익산다이로움은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를 톡톡히 입증하며 발행 규모가 더욱 확대됐다.

시는 상반기까지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인센티브와 소비촉진지원금 10% 등 총 20% 혜택을 이어나간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익산다이로움 사용자는 올해 6월까지 매월 최대 20%인 20만원을 다이로움 적립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적립금은 다시 지역 소비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개월에 1번씩 실시 예정인 다양한 다이로움 맞춤형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2020년부터 출시된 익산다이로움은 재정투입 대비 경제적 효과가 3.6배 이상으로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시민들의 경제생활에 톡톡히 기여한 덕분에 시민들의 정책 만족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시는 올해도 익산다이로움의 이용 혜택을 늘리고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익산다이로움은 2020년 연100억원 규모로 출시됐으나 큰 호응을 얻으며 1천829억원으로 확대 발행됐으며, 지난해에는 발행목표인 3천억원이 초과된 총 3천504억원이 발행됐다.

특히 지난해 1월 170억원에서 올해 1월 423억원을 발행해 규모가 전년 동월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골목상권 이용과 지역 선순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최고 혜택으로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유도에 힘쓰고 있다.

/익산=이득훈 기자

정헌율 시장, 주민 불편 해소 도로현장 행정 실시

정헌율 익산시장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행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 시장은 8일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현장에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이날 현장 행정은 확·포장 공사가 진행 중인 시도 제1268호인 어양동 어곳~부평 간 도로와 농어촌도로 금마면도 101호인 금마 갈산~서편 간 도로, 농어촌도로 왕궁 리도207호인 왕궁 양동마을 진입도로 등에서 진행됐다.

어양동 어곳~부평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그동안 일부 구간의 토지가 매입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곳은 주민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구간으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상반기에 진행해 사업을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금마 갈산~서편 간 구간은 지난해까지 일부 노선에 대해 토공사와 배수공사를 시행해 1차분을 준공했으며 올해 예산 7억원을 투입하여 2차분 사업을 추진하고 잔여 사업비까지 확보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양동마을 진입도로는 토지매입이 100% 완료됨에 따라 올 상반기 중 공사를 마무리하여 농작물 유통을 원활히 하고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익산=이득훈 기자

생태 특화 '익산 유천도서관'

시민 중심 개방형 복합문화공간… 개관 준비 돌입

익산지역 유일의 생태환경특화도서관인 유천도서관이 개관을 앞두고 준비에 한창이다.

유천도서관은 동산동 연면적 2,202㎡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건립 중이며 올 3월 중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천도서관은 단순한 도서관을 넘어 시민 중심의 개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휴식과 문화, 독서와 힐링이 공존하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진다. 또한 유천생태습지공원과 연계한 생태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생태환경특화도서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유천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시민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유천도서관 개설 프로그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유천도서관 인근지역 특성에 맞는 독서문화강좌 및 주민참여형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다.

설문조사는 시립도서관 홈페이지(http://lib.iksan.go.kr)에 온라인 비대면 조사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항목은 도서관의 주된 역할, 희망하는 강좌 등 총 8개 항목이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영등시립도서관(☎ 063-859-7310)에 문의하면 된다.

정헌율 시장은 "유천도서관을 시민들에게 독서와 힐링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만반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함께하는 도서관으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개관 준비를 할 예정이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이행 '양호'

군산시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발암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사항 실태조사 결과 계획대로 양호하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화학물질 중 위해성이 높은 발암물질의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정부는 사용량 저감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발암물질 배출 저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디클로로메탄 등 9종의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30인 이상 기업은 5년마다 배출 저감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지자체로부터 이행사항 점검 받아야 한다.

시는 관내 해당사업장 2개소(나투라미디어, 유신정밀공업)의 배출 저감계획서를 시 화학물질관리지도 앱과 군산시 화학물질관리지도 홈페이지(www.gunsanchemmap.go.kr)를 통해 공개하고, 저감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이행사항 점검을 완료했다.

점검결과 대상 사업장 모두 배출저감을 위한 공정 개선과 대체물질적용으로 발암물질 사용을 억제하는 등 저감계획을 대체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향후 배출 저감계획 대상 사업장이 단계적으로 415종의 유해 화학물질 취급, 전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및 이행점검을 통한 발암물질 저감에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꾸준히 배출저감계획서 공개 및 이행점검을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배출저감제도 조기 정착과,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화학물질 정보 및 안전한 대피요령 등 교육과 시민홍보를 강화하여 화학사고로 부터 안전한 군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군산=남현봉기자

지역 소식통

황철호 부시장, 현장방문 통해 시민과 소통

황철호 군산시 부시장이 현장방문을 통해 시민과 소통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황 부시장은 8일 오전 조촌동 한 아파트 시공현장을 송하진 도지사와 함께 방문했다. 이는 최근 광주사고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시공현장 실태점검 및 관계자들의 고충해결을 위해 이뤄졌다.

이날 오후에는 공설시장에 있는 여성교육장 건강증진실을 방문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건강증진실은 시장 이용 시민 및 여성교육장 수강생 대상 보건·건강 상담과 건강증진장비를 이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는 장소다.

특히, 여성교육장은 오는 3월부터 14주 동안 4개분야 24과목의 교육이 이뤄질 예정으로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조치 상황에도 409명이 4개분야 20여개의 과목을 이용했다.

/군산=남현봉기자

익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책임징수제 강력 실시

익산시는 체납액 정리 강화를 위해 고액 체납자 집중관리에 나선다.

시는 지난달부터 오는 5월 말까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80명에 대해 전직원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지방세 체납액 201억원(2022.1.1. 기준)중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차지하고 있는 체납액은 약 7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고액 체납자에 대해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시는 체납자의 부동산·자동차·금융·매출채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에 대해 일제조사 실시와 더불어 현지 거주사항 및 은닉재산 현장추적과 해외출입국 내역 등 결과를 통해 압류재산 매각, 공공기록정보 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익산=이득훈 기자